

刊 再

交隣須知

三

國 費

姓 名	年 月 日	大 額
五		

仁 同 章

3

冊
40
7



文選類知卷之三

增食五 對馬殿原精士有森方洲編

越脈四 三 文矢四 六 茂隣四 六 並輝四 六

號部三 六 車餘三 六 鄰具五 八 離餘四 一

鑄器二 四 鑄器二 六 錄器三 十 風尊三 三

錄器十 三 沈叔十 六 文翰十 六 聖器二 一

嘉寺一 金寶三 融刻小 本箱六

墓寺 一

金寶 五

鋪陳 七

布帛 九

彩色 十三

衣冠 十六

女飾 十九

盛器 二一

織器 二四

鐵器 二六

雜器 三十

風物 三三

視聽 三六

車輪 三七

鞍具 三八

戲物 四一

政刑 四三

文式 四六

武備 四九

征戰 五三

飲食 五七



刊交隣須知卷之二

對馬嚴原藩士兩森芳洲編 輯

對馬 浦瀬 裕棧正增補

周防 中谷德兵衛印 刷

墓 寺

社^ハ天^ヲ祭^ル是^レ天^ノ地^ノ社^ニ也

塔

塔^ハ寺^ニ在^リニ

仁川府五國書院藏本

增

陵

夜

齋

菴

寺

增은 귀신을 제하는 데라

능은 홍살문이 잇셔 언덕셔도 뵈옵비다

사문정신을 어리치게 하는 거슬야 채라 하고 독삼이

는 혹고이 혼번을 진느니라

齋戒호후에 제수삼히 하히 잇습비다

菴은 적어도 조용히 오니

寺는 경허옵세

鬼神

鬼神은 영험하여 정성 곳 이 소현 고향 후니

臺

臺에 올라서 방풍경을 보리다

碑

石碑를 세웠스니 그 眞의 덕이 마는 가보오

沐浴

沐浴하고 새 옷 입고 하느님 기뻐 밧고 저 허옵네다

亭

亭子에 올라서 眞세 眞을 眞하

厠

厠에 眞하야 노아라

祈

祈기를 지성으로 하면 眞을 남스니라

真經知卷之三

籬

魂魄

瓦

架

墓

接

埋

발톱으로여어보소

혼魄이잇셔야꿈여와되지

기와가세여져쓰니집우회올나가서곳치라

시렁에초자떡셔를가져오너라

墳廟 본묘를안단이무어야오래되세지지아니하느니

구슬것희꽃나무를아서라힘허불나리라

무든후에경이움즈기지못하느니

塙

塙이 문이 정습비다

機

정대어 옷을 거터라

懸

懸판에 쓴글사가 귀글시온고

挂 鏡

결쇠를 단단이 결고 종가라

陪 木

木陪을 잘박아야 종기 지 아니허비

散 材

산재를 휘이 열거라

鏡 樞

울적귀가 실허여야 문이 떠지지 아니허느니

壁

외 열거라 외 열거라 후질허자

橫木

빛당을 둔도 이 열너라 橫 허도 적들나

中 幹

숨 깃슬 드린 후에 외를 열거라

杙

장 나무어터다가 암편 차면 호야라

修 葺

니기를 잘 못니여 서비가 쉬움테다

祭

제지너 家內 허고 집안이 문주허오

棺

관이도 호연일씩씩지아니호나니라

喪
喪

不常ノアル家ニナリテ是ノノリヲ聞キテス
喪事ニ집의셔우는소리 들니 음네 다

槨
槨

棺ニ稱テ人ノ名ヲ外棺ト申ス
棺에 관을 더허 못느니 이름을 외관이라 허 음느니

吊
輓

タテマシハ知テ人ヲ慰ムルヤ
吊상은 아는 사롬을 위로하야 문는 비로세

神
主

神主ト重イニ神主トテ子孫ト祭祀ト
신주 가 중허니 신주 업스면 조손이 제사를 어디가 허

禮
禮

禮
리 오

服
喪

喪禮ト云フニ色ヲ去ルニシテ
服을 만나면 색을 없애는 법이니라

永
葬

葬禮ト云フニ水ヲ用ヒテ洗ハシメテ
永葬은 중수를 찼던 후에 못느니라

高寺 二 交隣須知卷之三 四

尸 體

屍體 (시체) 를 잘 영장 (영장) 하 기 하 음 소

珠 簾

珠簾 (주렴) 을 들 고 보 아 라

雌

平瓦 (평와) 와 가 열 식 나

雄

九瓦 (구와) 와 를 잘 니 여 라

小 祥

小祥 (소상) 은 一週 (일주) 보 니 큰 말 이 라

大 祥

大祥 (대상) 은 三年 (삼년) 의 제 소 라

脫 喪

脫喪 (탈상) 하 앓 습 비 다

眞珠

眞珠

眞珠

眞珠

眞珠

眞珠

眞珠

金寶

금이 메일 무겁수 외다

은이 만호연 귀신이라 도부리니

구슬이 여러 가지 울세

옥은 관조예 만아쓰니

진주는 크고 둥근 거시 못스오니

보리도 만호연 사람이 위여 허옵스니

舍 錫

함석은 저만 못쓰는 나라

礪 砂

礪사를 써야 쇠를 닦는다

水 銀

수은은 거울 닦는 사람의 깨물나 허옇다

立 石

현석으로 가루하고 간지를 다드르면 반반야 뜻수

象 牙

상아관주루는 아무 거시나 뒤우닷치면 부러지기 쉽

象 鼻

스오니

鍊
汎

鍊レン汎汎기キ를ル여レ편편편편하하면면하하면면쇠쇠공공이이
鍊汎극極진進하하오오니니

錯

錯サマツ지チ위ウイ고고문문그그릇릇사사아아마마쉬쉬이이아아니니새새러러지지오오리리

財
産

財サイ産産은은錢錢당當을을니니른른말말이이라라

冶
爐

冶エイ爐ロ가가상상하하였였기기로로한한일一日日
冶爐명名역역하하게게하하였였습습네네다다

銃

銃シュ이이라라도도하하고고무무쇠쇠라라도도하하음음네네다다

寶
貝

寶ホウ貝貝는는이이쌀쌀이이울울세세

白
銅

白ハク銅銅은은又又수수오오

金寶 交隣須知卷之三

七

帳

帳을 치면 帳리여 안아 못 보옵네다

地衣

地衣의 물피고 모다 안저 잔치하옵세

日傘

日傘은 외방수영들이 세오고 당기옵네다

鋪

鋪陳은 자리 빈설한 단말이라

遮日

遮日치면 햇치를 지아니하느니라

涼傘

涼傘은 나라 압피세우느니라

帳幕

帳幕은 한데 의티고 자는 거시라

雨傘

雨傘

우산은 비를 제하고 땅기느니라

草席

몽석은 곡식물니는 거시라

綈

布帛

능은 화문도 쓰고 벽도 문도 쓰음니라

紗

紗

사가 선취나 터틀옷과 관복에 쓰는 비단이니

帛

비단 품이요 스이는 극진치 못하데

羅

羅를 보니 출흥을 이기지 못하옵네다

布帛 交際須知卷之三

九

布

포승새가 굵그니 옷사갓다

縹

슈노혼슈품이 괴질허오

木

무연호 필멧자이온고

交

포직을어터뜨라허니 구하야 주음쇼서

明

명주가귀허니 울에 양장을잘못허엿는가시푸외다

縹

줄솜을옷세두어남으면 다른옷보더 뒤우덜수외다

苧

모시는줄이 십기죽으니 지니에 잇서 잘하야 줄사물

繭 繭

고[○]치[○]가[○] 품[○]아[○]미[○]우[○]조[○]호[○]나[○]만[○]이[○]사[○]자[○]
繭絲之類也 繭絲之類也 繭絲之類也 繭絲之類也

綿 綿

손[○]을[○]이[○]요[○]스[○]이[○]는[○] 절[○]양[○]되[○]야[○] 귀[○]막[○]을[○] 손[○]을[○] 두[○]엄[○]스[○]오[○]
綿絲之類也 綿絲之類也 綿絲之類也 綿絲之類也

絲 絲

실[○]이[○]엄[○]스[○]니[○] 못[○]지[○]여[○]남[○]가[○]어[○]럼[○]다[○]
絲絲之類也 絲絲之類也 絲絲之類也 絲絲之類也

紡 紡

紡[○]주는[○] 문[○]업[○]는[○] 비[○]만[○]이[○]라[○]
紡絲之類也 紡絲之類也 紡絲之類也 紡絲之類也

綾 只 紬

綾[○]只[○]주[○]를[○] 근[○]디[○]는[○] 보[○]지[○] 못[○]허[○]음[○]비[○]다[○]
綾絲之類也 綾絲之類也 綾絲之類也 綾絲之類也

閃 緞

閃[○]緞[○]은[○] 슈[○]노[○] 폰[○]듯[○]고[○] 비[○]만[○]이[○]라[○]
閃緞之類也 閃緞之類也 閃緞之類也 閃緞之類也

用 二 反 韓 須 知 卷 之 三

廣 織

廣織은 바방이 모단 又 드되 밧은 은 깃 밧 치 잇습네다

走 紗

走紗는 줄막 줄막 호비안이라

襦 子

襦子라 도허고 무주라 도허고 양능포라 도허니

走 軸

走軸도 잇고 큰주사도 잇습네다

杭 羅

杭羅가 이 곳 여 업 거 든 급 피 셔 울 기 별 허 여 더 주 소

大 緞

大緞단 은 감 시 열 마 나 허 음 는 고 중 단 은 못 쓰 음 네다

通 緇

通緇은 정애안이나 러니 요스 이 는 나 지 아 니 허 음 데

市 鹿 絨

市鹿絨 모견이 버거는 업소오나 혹은 상고 들의 게 인 는 가 무

光 絨

光絨 러보리이다

輕 光 絨

輕光絨 輕光絨들 회리 의 쓰라히음비다

緞 絨

緞絨 증이서너 필잇습비다

水 花 絨

水花絨 슈화축대섯싸문아주음소

多 紅 絨

多紅絨 다홍대단이 몇싸나 잇는가

絹 絨

絹絨 모단은 거문 광직스오

交隣須知卷之三

錦緞

비단이라 도축으로 서 나오는 비단이야 정금단이오

니

桃紅緞

도홍대단은 잇기 쉽지 아니하오니

鴉青

아청은 가마귀빛이치기 둔 청흑색이오니

草綠

초록판디는 당하관이 남습니

軟草綠

연초록장옷은 개집이 뒤를 허니 보기 못스오

沈香色

침향색은 향나무의 인자름은 서늘하니 오니

松花色

松花色 / 上着 / 女 / 襟 / 是 / 高

茶色

茶色 / 物 / 穿 / 袴 / 袴 / 袴 / 袴

灰色

灰色 / 是 / 袴 / 袴 / 袴 / 袴

柳

柳 / 袴 / 袴 / 袴 / 袴 / 袴 / 袴 / 袴 / 袴 / 袴

甫羅色

甫羅色 / 人 / 袴 / 袴 / 袴 / 袴 / 袴 / 袴

豆綠

豆綠 / 袴 / 袴 / 袴 / 袴 / 袴 / 袴 / 袴

蓮頭色

蓮頭色 / 袴 / 袴 / 袴 / 袴 / 袴 / 袴 / 袴

交國須知卷之三

十二

天 青

天^{テン} 靑^{セイ} 靑色^{セイシキ} 靑을 잘 드리연고 온 거시오니

眞 紅

眞^{シン} 紅^{コウ} 眞紅대단치마 남고 초록저고리 남고 퇴능바지 남고
眞紅大靑 眞紅대단치마 남고 초록저고리 남고 퇴능바지 남고

가는게 집 아희가 어엿부오

荷 葉 色

荷^カ 葉^{エフ} 色^{シキ} 荷葉色은 초록又스외다

石 水 色

石^{イシ} 水^{スイ} 色^{シキ} 石水色은 대슈름지 아니허오

玄 色

玄^{ヘン} 色^{シキ} 이라허는 거슨 검은빛치오니

機

틀에안존양이 장지어미 앞스외다

梭

복셔지는 복셔지는 精양을보니 精양을보니 杖갈쓰는 杖갈쓰는 슈공이로세 슈공이로세

織

쓰는거시 쓰는거시 緞緞이온가 緞緞이온가 文莫이온가 文莫이온가

經

놀을 놀을 白외 白외 絲絲로허고씨를 絲絲로허고씨를 文莫으로허면 文莫으로허면 杼杼지이라 杼杼지이라 亨亨

緯

나라 나라

三

씨를부드 씨를부드 織織리쓰야 織織리쓰야 緞緞이나 緞緞이나 木杼 木杼 文莫이나 文莫이나 杼杼기오니

三

삼승은 삼승은 杼杼회로 杼杼회로 杼杼다 杼杼다 杼杼 杼杼 杼杼 杼杼

細

細 細 杼杼는 杼杼는 杼杼 杼杼 杼杼에 杼杼에 杼杼 杼杼 杼杼 杼杼

木花

木花는 百文에 몇 두이나 하는가

去核

去核을 쓰려는가

壯緞

壯緞은 진홍이 제일이라

賞賜緞

賞賜緞은 북경에 간수신을 주신 거시라

彩色

靑

靑 하늘을 보니 가을이 깊을 줄 아올세

黃

黃은 아무개는 엷다 허옇다

赤 澤

赤澤 アカザ 노리새쓰니 비울새시루오

白 漆

白漆 アカシ 흰거슬부의 팔드리니 악감수외다

黑 漆

黑漆 クロシ 검은구름이 북다히로 모혀쓰니 우장을 가져가옵소

綠 漆

綠漆 キナシ 푸른제구리 남은 거슨 빛아희가 성아로세

染 漆

染漆 シメシ 물드리는 수공은 얼마나 해온고

彩 色

彩色 イロ 희색을 잘매 빛습테

塗 漆

塗漆 ヌリ 칠야두엇사가 주옵소

彩色 卷之三

十四

漆
素

칠이 못치 아니하니 부디 도흔 칠노 허여 주옵소

朱
紅

朱紅이 꽃치 아니하니 칠이 싹적 싹적허오

銅
綠

동녹이 쓰러 쓰니 뒤우닥 거라

粉

분성력허고 심이 고온
體에 허는 구나

三
綠

삼綠은 온고
彩色이 오니

三
靑

삼靑을 너무 적세드 몇기에 빛치 업소외다

二
靑

이靑은 다름이아 빛치 나느니

雄字正音

回々靑

회회靑은 화궐그림그리는 데 쓴다 허옇네다

酒金

酒金으로 칠을 극진이 하여 주 소

黃丹

黃丹은 주홍만 중북색 못헌 거시오니

石雄黃

석우황은 빈암 돌난테 부르면 꽃수오니

桃黃

도황칠은 저기 담허니라

瓊花

공당쓰러쓰니 막거서 쓰라

銕垢

동녹세여시니 닥가두고

彩色 交驗須知卷之三

十五

膠

부뒤되거셔여친귀를뚫쳐라

阿膠

아교되거셔취색을잡힘성

石雌黃

석조황은빛치담허니라

蒔繪

시회는금으로그림그던거시라

黃漆

누른칠이교오니라

白

하얀거시로세

玄

가호비치로다

黃

赤

紅

紗

笠

袍

黃イ色 イロ 빛 조 회

赤 カ 빛 습 네 다

紅 ベ 근 빛 치 터 옥 돛 손

衣冠

紗帽 サモ 는 비 슬 허 는 兩班 이 쓰 느 니 라

笠 カサ 쓴 후 여 셔 를 아 니 셔 니 보 기 실 수 오

袍 ホ 포 버 며 라 관 가 에 도 터 오 자

女袴

중의틀 벗길새 중의틀 벗길새
행삼산마다 허는 행삼산마다 허는
메나 허여야어 잇썩음 메나 허여야어 잇썩음

테

襖

바히 바히 하 하 옷시 옷시 업쓰니 업쓰니 잇씨 잇씨 을나 을나 갈지 갈지
승 승 녀 녀 허 허 음 음 네 네 다 다

衫

적삼을 적삼을 썬 썬 니 니 허 허 게 게 버 버 여 여 주 주 어 어 라 라

襪

주 주 를 를 을 을 잘 잘 잡 잡 았 았 습 습 네 네 다 다

領

옷 옷 깃 깃 술 술 잘 잘 념 념 의 의 여 여 라 라

袖

소 소 매 매 길 길 노 노 록 록 치 치 면 면 붓 붓 그 그 러 러 워 워 허 허 는 는 양 양 이 이 어 어 잇 잇 썩 썩 으 으

衣襟

被

背

背

紐

縷

縫

衣襟을 돌이켜라 衣襟을 돌이켜라

남은 거시 열매이니 침지 아니허온가

갈옷 남혜섯는 양이 집짓장수담소

매엇고 일되어 우니 천상을 만났는가 시주오

안후외정비주에 두라 남우소고 옷주오 남을

갓문을 아니되고 가다가는 부등에 버서지오리

흔거시며 저쓰니 다시 호고 알을 너어라

衣襟

衣襟知卷之三

十七

脫

襖

着

箕

襪

油

袈

襟

衫

袈

벗서거려루되몬지가세이매상허옴테

동기저귀새릭풀나여라

착즈는남다도후고쓰다도허고붓다도허옴테다

누역남고논투명이처리라

보선이열으니말이슬이오

유삼이하여저스니비가쉬옴테다

가사남고송낙포고념풀허는양이진짓서가여디데

子アコナル

즈로세 子アコナル

雨裝

우장 雨裝
우장 雨裝
우장 雨裝
우장 雨裝
우장 雨裝
우장 雨裝
우장 雨裝
우장 雨裝
우장 雨裝
우장 雨裝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靴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幅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草鞋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木屐

表
交隣須知卷之三

十八

展

路^ル이^イ형^ヘ호^ホ니^ニ격^ケ자^자를^를신^신고^고가^가거^거라^라

裁

옷^옷을^을폴^폴나^나주^주어^어두^두잘^잘못^못지^지어^어남^남오^오니^니남^남너^너부^부질^질업^업다^다

上

옷^옷을^을남^남선^선가^가을^을소^소

裘

皮^피衣^의 날^날이^이터^터우^우니^니보^보에^에싸^싸두^두어^어라^라

衣

옷^옷을^을덤^덤세^세남^남선^선오^오니^니생^생이^이나^나네^네

單

옷^옷을^을남^남오^오니^니시^시원^원하^하오^오

直

直^직領^령을^을남^남선^선관^관가^가에^에드^드려^려갓^갓습^습네^네다^다

袴

바지틀크게지여시니 길가기면 양허외다

納

納衣는 동의 옷시오니

簀笠

삿갓쓰고누여 남고 흥의에그가는 양이 농수하는사

冠

관을엇지저리 빗구루연는고바루게쓰음소

可里麻

가리마는 기성들이쓰느니라

笠胃

갓모는 비개면 불용이오니

衣

冠

交隣須知卷之三

十九

戰笠

戰笠은 여놀이거위다쓰느니

女飾

珥

귀잇물이라허는거슨귀집사롱이귀에두느니라

指環

가락씨는손가락에세는거시라

丹粧

단장을허고눈썹을버들남처럼지엇고나

飾

수며아무리니쁜들버가비압외속오랴

佩

은주머니에무어시드엇느냐

髮

ム

머리속신아見候チ회들보연터욱어엿비회용네다

鬘

ム

돌니열단판사주용소下チレ

髻

ム

상루를웃음이又치갈쓰주소

了

髻

사양머리선女ノ子아회머머우르니兄시방주무신다허오

眞

梳

솔빛시설회나셔가아니나오니

梳

角

빛치개도정허쳐두고

梳

頭

머리잇차허되잇들이꽃치아니후니엿여허올고

女

變體須知卷之三

二十

梳貼

鹽

蠟油

刺齒

塗

澡豆

漱之

빗엿을 정이 짜서 幸定 고비에 高飛 섞어 다

고씨 쓴 후에 진지 올터라 親

밀기 등을 머리에 붙이고 호수 호수 다

니수시는 거시 竹筒 통속에 細 저쓰니 細 섞어 오나라

물은 거슬 잘못 나 시니 細 칠이 細 굵지 아니 細 하외다

비누엿시 洗水 세수를 洗水 하니 洗水 고치 洗水 면 洗水 하오

양치질 口ス、 허개 アヤ 물 水 섞어 오나라 口ス、アヤニ水ヲシテオナラ

剃頭

머리를 깎고 증이 되려 하오

簪

빈아라 증은 거 손계집사름아 머리에 꽂는 거시라

葫蘆

조롱은 세 식의 여 초는 나라

鏡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만이 수척허엇거든

劍

劍은 손목에 세는 꼬리니 당인들이 세되 부귀인들이 세

簪

인다대

巾

슈언을 상여 굵니 지말고 못세 걸어라

鼎

솫치관거손조석에 뜨는 거사나 혼새도 업지 못호셔

棧

시오나

香爐

향노에 향회여노와라

區

머야에 물서오라

神仙爐

신선노는 산에 가서 솥에 먹기도호디라

甌

실우에 석을갈새버면 먹기 무연허니라

甕

독이도호면 장이나 술이나 잘느니라

盆

盒

瓶

花瓶

鍾

鉢

鍾子

水邊ミヅノヘ에 물담아 두어라

重箱ニホリ은 음식이 마시ハ면 치아니 향ハ였느냐

樽ツル에 든 술은 나문다 소를 아지 못하니 꼭ツ좁혀와다

花瓶ハナビン에 물 붓고 꽃가지를 써 거르즈면 리움베다

鍾カネ은 김허술마시기 거북허움데

바리는 쇠로 만든 식기오니

鍾カネ은 장담아 상가운데 놓는 거시오니

圓盤

두리반에 발을 세울 면 호편으로 기우러 지기 쉽

외다

외다 오아 술을 마시게 하는 술이다

匙子

수짜 락으로 발머리는 조현만 입는 가지 푸오

盛

담는 그릇시 만모록 조호니라

苦窠

기운 그릇시 아무어 세 쓰리요

床

상초 몇는 나

屈

구부러진 거 손아 주 쓸데 업느니라

罐

爐

沙鉢鉢

樽

缸

酒煎子

罐 罐 판을 조히 싣고 역을 정이 들 터라

爐 火로 에 숯불 피고 고기 구어 번 후에 술 데여라

沙鉢鉢 沙鉢鉢에 냉수를 떠다가 먹으면 시원하오니

樽 樽에 술이 가득하여 쓰니 밤이 새 두목 먹습세

缸 缸 아리에 술을 넣어 터온 데부터 두면 마시 번치아

니 하오니

酒煎子 酒煎子에 술을 자금 자금 데여 두면 술을 처가며 부

有足盤

발인는반이받소오

網踈杓

망소자로년저내여라

貼匙

점시대중소각한죽어터주소

陶鼎

질숯튼간난한사들이쓰느니라

織器

籠

동은의복넣는거사라

皮籠

가죽으로넣는동은질괴오니라

箱子

상자에는 개집사들의 상의를 넣는 거시라
箱衣

筐

광류리들고 가서 파실석오노라
匡

函

함에침이책무르지아니하니손대지달라
函

櫃

櫃內에넣고중근거술취가져가리요
櫃

馬省

물술노름을빚기면물이시원하야흐느니라
馬省

幕

남취는잇거나와쌍쓰는쓰리취나면취나장만하여
幕

幕

다

織

器

夜蘭須知卷之三

二十五

籥 策 掃 棗 蓋 藏

체여 フキニヤ ㅈ우틀 ヂウトル 여리 イリ 언츠 エンツ 면점 メン점 정터 정터 마느리 마느리 지느리 지느리 라

衡漸

죤리 米 로살 イサ 을 サ 낀 ニ 지 レ 면 バ 모 モ 터 터 가 ガ 업 업 느 느 니 니 라

대 大 덩 덩 쓰 쓰 러 러 라 라 살 살 예 예 질 질 로 로 사 사 둠 둠 의 의 마 마 음 음 을 을 안 안 다 다 허 허 느 느 니 니 라

자 자 루 루 에 에 곡 곡 식 식 넷 넷 고 고 메 메 구 구 가 가 연 연 경 경 편 편 허 허 니 니 라

무 무 에 에 를 를 덤 덤 퍼 퍼 두 두 고 고 김 김 이 이 나 나 지 지 아 아 니 니 캐 캐 허 허 여 여 라

장 장 에 에 서 서 쇠 쇠 을 을 너 너 허 허 무 무 연 연 상 상 치 치 아 아 니 니 켜 켜 몬 몬 지 지 아 아 니 니 오 오 르 르 을

비 비 다 다 ...

狙 奴

도마에 오를 고기가 갈을 저어 하랴

桶 干

통에 물기러라

女 筐

대강은 비편내가 세간을 넣는 거시라

囊 帶

주머니에 약을 넣어두고 돈니면 급훈새에 쓰기 조호

綱 骨 索

나라

筒 骨 筋

그리들 가죽으로 싸면 아무 거시나 너허가지고 길을

綱 索

가도 상치 아니하느니라

掛箱

掛箱 피루너흔패상가저오느라

皮掛硯

皮掛硯 가국으로성패상터루는질괴여조호니라

臥看書案

臥看書案 와간셔안에희노고보더니 좀드엿습테

桶帶

桶帶 통베가상허엇스니 씨를끗쳐라

繩帶

繩帶 繩던는길갈새에엿지못할거시울세

刷子

刷子 샤즈로맛세문지쓰터노와라

鐵器

鐵器 코오오...

斧 鉞

斧鉞은 國王의 首를 立아 모노아라
부일은 人君의 首를 立아 모노아라

斧 氏

斧氏로야 굴근 남글버에 서리느니라

鐔 鐔

鐔은 나무나 새미나 살으면 쉬이 끊어 가느니라

鑿 鑿

鑿은 나무를 기어 종요로운 거시니라

鑽 鑽

鑽비비는 나무를 은 거시로다

鑽 之

鑽之는 나무를 은 거시로다

銃 銃

銃이로 땅을 파고 나무심거라

通 國 文 獻 通 考 卷 之 三

二 十 七

串

串 치 어 고 기 를 생 여 벗 궤 울 니 여 라

撥

手 串 으 로 비 버 라

小 錘

手 마 래 를 엮 거 그 돌 을 거 러 보 와 라

鋸

鋸 니 를 줄 로 세 워 라

鞞

보 름 내 여 가 서 맞 가 러 라

斫 刀

斫 刀 도 를 들 게 마 라 여 볼 싸 흐 러 물 엮 거 라

錐

송 天 스 로 생 고 녹 은 으 로 생 여 락 여 라

耒

차위는 밭가는 거시며 농부에 요긴호거시니라

鈴

방울 소리가 빽빽하여 얼니 얼니 읊네다

鉞

침은 병든 데 주느니라

鉤

갈구리는 아모거사나 거터 등귀는 거시니라

鎖

조물씨로 종지다허고 마을 못치마옵소

鑰

열쇠 가져가 종은 틀 열고 내여라

鏡

요령은 손으로 흔들어 열 열 명 열 명 허느니라

雜字正音 交關須知卷之三

火 鐵

剪 刀

蚌 釘

鐵

大 鋸

鋪

鐵 把

火鐵는 불업는 때에 치면 마장 重寶인 것시울세

가위가 드지 아니하니 樹ノ下 줄죽은 훑거세 쓰지 못하올세

거덜 못막으면 丈夫 문헌니라

낮가지고 나무 띄여오니라

뚝이 크면 아무리 큰 날기라도 쉬이 꺾지느니라

삼호로 상을 썩거 반듯하게 하여라

쇠시당은 더러운 거슬거 리동괴는 거시라

挾刀

挾刀 ア에 약 ヤ설 セ혀 ヒ 손 テ버 키질 ナ

大椎

쇠 イ뿔 ノ 동 ノ 이 ヲ로 ヲ 치 キ면 イ아 ノ 무 ノ리 ノ 질 키 권 키 거 키 시 ノ 라 도 부 키 서 키 지 키 오 리

鍊

쇠 オ마 ス 래 キ 가 ヲ 저 ヲ 가 ヲ 서 ヲ 지 キ 천 ヲ 을 ノ 김 키 지 키 처 라

鎚

쇠 オ갓 キ 치 ヲ 엮 キ 스 니 못 ヲ 박 키 기 키 어 키 댔 다

鋤

호 オ위 키 에 키 그 키 기 키 음 키 뒤 키 러 키 가 키 자 키

指南針

지 オ남 키 침 키 업 키 스 연 수 로 어 키 서 키 수 키 방 키 을 키 엮 키 지 키 아 키 울 키 쇠

馬鐵

말 オ대 키 갈 키 이 키 엮 키 스 연 물 키 밭 키 이 키 압 키 푸 리 라

鐵器 卷之三

二十九

鋸子

속리개는 덜생는 거시라
삼부도

兩耳釘

兩이釘을 못박으니 든둔치 아니허오

頭釘

廣頭釘은 머리인는 못시라

泥鐵

혹손을 토역장이 기비러오니라

烙印

낙인을 쳐라

食刀

食칼은 부엌에서 쓰느니라

刀

小刀라

雜器

기^器를^又 손^후에^말을^始 시작^하자^성

다^石들이^아 꽃^다 ...

털^白구에^未 쓸^을 뜻^고 쓸^어라

연^에 마^라 무^를 임^드 러^라

살^기 들^인 우^허 면^살이^푸 른^빛 치^나 음^네 다

綱^太 태^를 수^나 크^게 인^드 러^고

雜器 交隣須知卷之三 三十一

炬
火

회생을 위하여 어둔 밤에 길을 가느니라

瓮

독이라 하여 도적은 거슬러 리라 허옇느니라

甌

의우 큰 독을 강이라 하느니라

磴

방아는 사동이 여러 하서 으면 쌀이 쉬이 알느니라

杖

침핑이를 담고 만니면 눈근이 허리가 덜 아프니라

槽

귀우에 여물을 넣어 물을 잘 먹여라

燭

초생불은 길고 글을 보니 뜻슴데

滅燭

등멸초고자음세

燈籠

등생이어두어뜨니불도두라

磨石

엇돌은무겁도죽도호니라

毛扇

모선은방안이겨울에갈갈제것술마리느니라

燈花

등화도호나응당것생일이잇소오리

明燈

물근등잔아래미인울더야안즈면엇더허울고

挑燈

등잔도루고안저긴밤을새움세

韻

韻

東國通雅卷之三

三十一

烟竹

담배에 불뚱쳐다그

臨

보아가네물중에인느냐

礪

숫돌이부드러워야갈근거시빛치나옵비다

紡車

물베에실을즈어라웃지여남자

歷車

시아여든소음을거핵야라

搗鍊

다드미질허연반한호니라

柄

동루를문둔이박엇기에짜지틀아니허니라

尾扇

세이^シ扇^ハ선^ハ을^ヲ색^シ지^テ로^ク불^스나^라그^レ럼^에그^레주^르음^소

笏

笏^ハ은^니王^ノ上^ニ前^ニ入^リ往^ル申^ス上^ニ書^ク書^ク는^거시^라
上^ニ감^안알^피드^리가^라알^침말^씀을^쓰는^거시^라

笄

笄^ノ사^마도^삼년^을간^원다^하니^삼우^소

椽擊

여^로상^을두^두터^라

水斗

드^터틀^어티^두엇^{느냐}

篩通

질^통을^어티^다가^설시^를늘^터라

搔痒子

손^양조^로갈^거라

魚 帳

어장^{魚帳}을 막^막아 엮^엮어 다^다는^는 魚帳은 魚의 網을 掛는 帳子라

杖 藜

木^木杖^杖은 木^木杖^杖으로 杖^杖을 杖^杖이라 杖은 杖子라

竿 竹

竿^竿은 竹^竹竿^竿이라 竿은 竿子라

風 物

風^風은 物^物이라 風은 風子라

琴 瑟

거문고^{琴瑟} 두^두 거^거라 琴瑟은 琴瑟子라

琵琶

비파^{琵琶} 소^音리^音는^는 처^處당^當하^하다 琵琶은 琵琶子라

洞 簫

洞簫^{洞簫} 소^音리는^는 본^本데^本 술^酒주^酒기^氣에^에 춘^春나^納라^納 팔^八천^千이^子 그^其 소^小 洞簫은 洞簫子라

洞字正音
簫字正音
主

風物 交隣須知卷之三

三十三

脯

長

絃

口

胡

笛

脯

鼓

琴

笛

笛

笛

笛

리 뜻고 호터 정다 허음네다

뜻소리 청청야 열니 가음네다

호 가 소리는 사물에 온 것 임 버 들 버 음느니

구 락을 잘 불면 멋소리 주소오니

금 소리는 가지 가지 음 허 음느니

장구 불치면 송추기 솟수오니

쉬 푸 랑 불고 지주 허는 거 술 경적 인이라 허음네다

管子正音
全

律字正音
全

喇字正音
全
吹字正音
全

吹字正音
全

銅字正音
全

太平簫

太平簫 수는 만중에서 쓰는 풍류 기악

笙

笙은 호구멍으로 불면 열두구멍으로 소리각

笛

각나서 심이 높을용허음네다

喇

나팔 소리는 천악이라 장일니 들니 음네다

吹

슈라 불마도 불면 입이 기운을 관제 할가

銅

銅鼓는 구리로도 하고 쇠로도 인드니 북은 거시라

鐘

쇠북 소리는 오래 듣치지 아니하느니

風物 夏臨編知卷之三

三十四

石磬

석경은 나라 제향에 치는 풍류 곡이니

錦手

정수는 증치는 사물을 니름이라

阿箏

아정은 거문고와 트외음이 만습네다

栢板

박판은 풍류시이여 치음네다

曲調

곡요를 모루고는 노래와 춤을 뜻하느니라

鼓

북이 크면 소리가 민우나 울네다

舞平

춤은 풍류도와와야 춤추기 뜻스오니

歌 唱 彈 吹 樂 遊 絃

藝 人 藝 術 藝 術

歌 노래를 잘 부르던 소리와 맛쌈비다

부루기를 잘 부르면 소리가 次々 흥하니 여가는 듯하되다

무기가 일수오매 加耶 고도 듯기 面白 邊 미릿쌈비다

불기를 잘하면 나락 소리가 일니 往 가슴느니

樂 풍류하고 一同遊 오치노음세

노다가 밤들기 든 關 파허음소

줄이 끊어져 서니 後 니은후에 무기를 허여라

木鐸

鼓人

七聲

鐘

鉦

名唱

風磬

木鐸 トク 木 キ 鐸 トク 은 ハ 木 キ 鐸 トク 가 カ 에 ニ 쓰 ス 는 ル 거 コ 시 ノ 라 ラ

鼓人 トク 인 ニ 물 ニ 에 ニ 기 キ 행 ハ 하 ハ 를 レ 허 ケ 음 ニ 소 ソ

七聲 シ 이 イ 라 ラ 허 ハ 되 テ 여 レ 서 セ 술 ス 다투 ト 라 ラ 뒤 ヰ 고 コ 치 チ 음 ニ 배 ヘ 다 ダ

鐘 シ 은 ハ 소 ソ 리 リ 가 カ 징 シ 징 シ 허 ケ 거 コ 니 ニ

鉦 シ 은 ハ 소 ソ 리 リ 가 カ 요 ヨ란 ニ 허 ケ 오 オ

名唱 シ 이 イ 토 ト 세 セ

風磬 フ 은 ハ 부 フ 둠 ム 더 テ 두 ニ 소 ソ 리 リ 나 ナ 거 ケ 든 든

視聽

도라 보고 뒤를 살펴옵소

도라 보고와도 아무 두오느니 업네다

엇보고 눈이 허는 일을 만안이 아는 거슨 불쌍 혼행
不 良 混 行 實 心

이오나

본일을 본대마소

눈을 굽고 좁든 후는 세상에서 뜻아니 허오

交際須知卷之三

三十一

眼鏡

目鏡을 세고 휘를 빛겨 보면 눈이 부시지 아니하되다

千里鏡

遠目鏡을 대며 보니 언덕이分明히되다

聞

드른 말을 속키 빗고 본 일을 모른대 하음소

知

알고도 알지 아니면 모루나 다르울세

靛

구경은 산수가 아마도 웃돌이오니

白鳴

時時音은 공으로 이문드러터

風聞

風聞이 잇습네다

轉

輪

載

曳

駕

乘

奉

말너 말 조작 조작 又 又 처 처 허면 허면 허 허 들이 들이 었 엇 스리 스리 요 요

車 車 에 에 락 락 권 권 줄 줄 듯 듯 세 세 상 상 에 에 든 든 니 니 고 고 모 모 난 난 예 예 말 말 세 세 시 시 오 오 니 니

시 시 편 편 거 거 시 시 만 만 으 으 니 니 짐 짐 이 이 무 무 거 거 위 위 가 가 지 지 못 못 호 호 따 따 시 시 루 루 오 오

보 보 어 어 버 버 며 며 보 보 와 와 라 라

駕 駕 마 마 두 두 고 고 가 가 는 는 부 부 인 인 이 이 피 피 뉘 뉘 시 시 닷 닷 가 가

무 무 고 고 갈 갈 서 서 시 시 업 업 서 서 오 오 늘 늘 도 도 며 며 들 들 밧 밧 께 껴 업 업 스 스 오 오

잇 잇 살 살 고 고 가 가 면 면 줄 줄 도 도 심 심 이 이 又 又 버 버 허 허 네 네

拿ナ子シ走ソウ

잡어다가다니니 물상히외다

平ヘイ轎キョウ子シ

평교자는 보국이상 못된 투시니라

雙쌍駕駕馬마

쌍가마는 이공관원이 두시니라

草草輜輜輪輪

초씨는 부모상당환상제가 두니라

人人駕駕輜輜

로리마는 두니 승용허외다

重重馬馬

거들아가호스앗고나

鞍안具구

鞍具

雙騎馬

二匹ナリテ一馬ヲトブヤロニカケマス
雙騎馬
쌍기마로느는드시가음네다

雙馬

二匹ナリテ一馬ヲトブヤロニカケマス
雙馬
쌍마가터욱又치又새든

馬上倒立

馬上倒立
마상도남을상말에올구나무라니트느니

鎧裏藏身

鎧裏藏身
鎧裏藏身
전장에쓰는
木標

馬上立

馬上立
마상남은안장우의서서뭇체질허음네다

馬上仰臥

馬上仰臥
마상양와를송장거리라호느니라

左右七步

左右七步
좌우칠보는두는사들이뒤우분주하여되음네다

倒拖

倒拖는 길에 잇는 거슬 지버오는니라

鞍

鞍 안 갑 역 몬 지씨 러 안 장 에 덩 퍼 라

鞍

鞍 안 장 버 여 물 세 지 여 라

勒

勒 굴 비 씨 여 라

犯馬

犯馬 아 허 고 가 니 인 수 모 로 는 사 물 의 로 다

鞴

鞴 둔 래 는 안 장 에 물 년 거 시 라

籠

籠 등 중 가 기 니 쇠 아 서 차 르 기 허 여 라

鞍具 鞍類須知卷之三 三十九

卜 鞍

짐길오마 돛코 짐시리오나라

輻

골갑비를질권 가죽으로하여라

轡

허을둔둔이두리라 허을잡우면론이준버여도
命 處 徒

鞅

가덜허니라

말치가업스면 언덕너릴세길오마가압푸로수거지

느니라

肚 帶

미씩틀미우둔론이줄더야느릴세기우러지지아니

호오라

胸帶

가슴거리를이면 胸帶 호고 腰 개에 오를세길마가 뒤오로

물너나지아나허리

卜繩

침바를가치고그침질머오라

卸

침부러운쉬여라

馬黃

마삭술얼마나주면시터올고

卜解

심술준고은거술다내며 상고야보와라

卷具

交隣須知卷之三

四十一

結
卜

馬
鹿

卜

街

一
駄

一
負

심위여라갈씩나자

도둑을노흐면먼길에올을루고가도불기가아니암

푸나라

심은가뵈여도
馬 朔 馬 朔
손잘주어라

재갈먹이고쇠마합세여라

혼바리에얼마나싹고갈서사루냐

혼짐이엇무게나드럿느냐

一 塊

一 結

一 襪

一 鞭

一 隻

一 카 마 이 브 何斤 마우 게 나 온 가 무 러 보 와 라

한 뎡이 가 엇은 무 게 나 온 가 무 러 보 와 라

한 뎡이 가 엇은 무 게 나 온 가 무 러 보 와 라

한 뎡이 가 엇은 무 게 나 온 가 무 러 보 와 라

한 뎡이 가 엇은 무 게 나 온 가 무 러 보 와 라

한 뎡이 가 엇은 무 게 나 온 가 무 러 보 와 라

한 뎡이 가 엇은 무 게 나 온 가 무 러 보 와 라

한 뎡이 가 엇은 무 게 나 온 가 무 러 보 와 라

한 뎡이 가 엇은 무 게 나 온 가 무 러 보 와 라

한 뎡이 가 엇은 무 게 나 온 가 무 러 보 와 라

鞍馬

交際須知卷之三

四十一

戲物

바둑이 잡기 중에는 웃음이오니

難技中

판이도흐니 바둑 두기 뜻스오니

장기는 여씨수를 보와야 잘둔다허음테

훈수를 드르연 노름이 조출지아니허오니

쌍륙은 기운이도 혼날터연너우이낫스오니

말이 조와야 바둑이나 장기나 쌍륙이나 족미잇니

陸字正音

碁 局 博 訓 雙 陸 馬

發

賭

蹴

骨

毬

相

撲

라

나 카타레 다 가 지니 대 敗 敗 로 세

타 기 를 잘 내 니 용 하 다

골 패 는 짓 는 법 이 공 부 드 느 니 라

죽 방 을 티 는 양 이 어 옛 썩 의 다

사 름 은 심 이 세 여 아 이 권 다 허 되 뵈 가 이 쓰 연 터 욱 용

타 허 읊 네 다

關

저비단거슨 仕合 유혈복이니 有歌 잘자부러하여도 無 무가奈何

로세

잡기는 前日 소일호만치하여서 언해돋지아니하니라

雜技 戲子

任 任 노릇시보 노릇 왕악하여테

著基

바 바 옥두어승부틀결허음세

假基

고 고 누란거시 고 호순가업지아니허오니

基子

바 바 옥돌이 바 즈터야 두기도호니라

正音 正音
 正音 正音
 正音 正音

鞦韆

그녀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남자가 잡는다
 그녀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남자가 잡는다

鞞

코끼리를 잘 훈련시킨다
 코끼리를 잘 훈련시킨다

超

뛰어넘은 몸을 돌피소서 뛰어달라
 뛰어넘은 몸을 돌피소서 뛰어달라

掛繩

과승리조는 위뒤허데
 과승리조는 위뒤허데

後裙倒

뒤쓰고 뒤근부를 향하니 용허오
 뒤쓰고 뒤근부를 향하니 용허오

夫실 見타가
 實망

誤오 見오트
 實망

공비

冠冠 手介
 冠冠 手介

有家無家
 有家無家

모라간다

戲物 度讀須知卷之三 四十三

政 刑 嚴 號 分
令 付

비갓다

오五
孔公
孫도中
莊화

還還
還還
還還

政 刑

政事(정사)를 잘(잘)할(할) 시(시)에 만(萬)민(민)이 송(送)덕(德)을(을) 허(허)옴(옴)네(네)다

刑罰(형벌)이(가) 너무(너무) 중(중)하(하)기(기)에 되(되)성(性)들(들)이(가) 원(元)망(망)을(을) 허(허)옴(옴)네(네)다

嚴(嚴)하(하)야(야)야(야)태(태)사(사)름(름)이(가) 두(두)려(려)허(허)옴(옴)네(네)다

號令(號令)이(가) 엄(嚴)숙(숙)하(하)야(야) 군(軍)중(中)이(가) 외(外)급(급)허(허)옴(옴)네(네)다

分付(分付)를(을) 드(드)렛(렛)수(수)오(오)니(니) 얼(얼)연(연)이(가) 허(허)오(오)릿(릿)가(가) 구(구)분(분)이(가) 나(나)다

白活

말을 잘 하니 소지정하니 예서 낫거니

屬公

공의 귀양보이니 참아 불상하외다

承服

승복을 하니 옥에 가두어 두어라

發明

발명야 인공의 혼외를 마스도 언하여 습니다

現發

현발야 역적이 들쳐나니 이제는 평정하여 엿습데

法

법을 지키며 절에 죽으니 충신이 올세

令

우후로 하니 리는 말을 넣이라 하느니

令字正音

政刑

夜臨知卷之三

四十五

賞 標 赦 罪 恩 謝 公 事

賞은 후이 주시고 형벌은 명백히 하기에 흠소셔

표를 하고 병을 부르옵소

사를 만나 귀양을 면하니 현은 이토소이다

죄는 중호씨연정명에 결년일이 엄소오니

은혜남었다가 감싸아닌 죽증형주소외다

사례허노라 하야 부러웠습네다

공사를 부스런이 허는 관원이 올세

踪

인벤미르아카와하야코[○]가도죄인인술아느니라

拿入

拿入[○]은잠어드릿단말이라

推考

추고알나시나하여엿지아는가시푸외다

容貌犯記

容貌犯記
容모다의를보찾합는가

連坐罪

連坐罪
連累[○]원술다아음느니라

贖罪

贖罪[○]를하느니라
贖罪[○]를하느니라저버리음소

文式

政刑 文式 交隣須知卷之三

四十六

註題學習讀人吟

註^ナ를^ヲ분^分명^明이^ニ내^내여^여시^시니^니모^모를^를일^일이^이업^업수^수오^오

글^글메^메들^들내^내여^여주^주시^시연^연글^글지^지여^여보^보오^오리^리

바^바우^우기^기를^를심^精씨^씨하^하여^여기^家구^구지^之업^業을^을하^하기^기하^하엇^엇습^습네^네다^다

니^니기^기를^를극^極진^진이^이하^하을^을소^소

바^바기^기를^를긋^止치^치아^아니^니하^하니^니도^道무^무여^여병^病날^날새^새넋^넋터^터를^를스^스외^외

다^다

을^을퍼^퍼도^도글^글새^새가^가나^나지^지아^아닌^닌가^가시^시주^주오^오

次韻

次韻ト云フコノハ韻ニカトッテモクテアリガクゴデル
本韻이란거슨韻을동고잡짓기어렵소오

諺文

諺文ハ云コタイ 書ヲ讀カキマス
언문은향고시준말을다쓰음네다

冊

冊數ヲ數 覽見アコソ 簿簿ニナ
冊數를이러건보와야박남이되느니

卷

冊數ノ多イ本ハ見ルコトガダラレバデ
卷數만본최은보기지리허외다

紙

紙ハ 備共ガヌキマス
종이는종들이쓰음네다

筆

筆ガヨケレバ字
부시도호연글시가너도이잘되음느니

記

記録 支ヤ 두음소
기록야두음소

文式

文式類知卷之三

四十七

綾花

綾花 綾花 로 天 던 판 板 즈 子 를 부르 呼 면 見 보 見 기 見 듯 見 거 見 니

爻周

爻周 周 주 周 야 野 효 孝 國 國 버 伯 리 里 음 邑 소 所

書簡

書簡 이 已 분 分 어 已 지 已 니 已 무 無 음 音 이 已 섭 涉 섭 涉 호 好

置

置 置 치 池 부 夫 를 夫 호 好 야 野 무 無 어 已 야 野 닛 已 지 已 아 已 니 已 호 好

法帖

法帖 을 已 보 已 고 已 야 野 글 古 시 已 가 已 쉬 已 이 已 느 已 리 已 가 已 느 已 니 已 라

記草

記草 記草 하 下 초 草 들 已 호 好 앳 已 다 已 가 已 정 正 서 書 로 已 벗 已 기 已 게 已 호 好 음 音 소 所

八分體

八分體 八分體 八 八 분 分 體 體 들 已 녀 已 기 已 락 已 허 已 역 已 도 已 아 已 니 已 외 已 음 音 네 已 다

九分體

九分體는 九分體의 體이다

篆字

篆字은 篆書의 體이다

水墨

水墨은 水墨의 體이다

單子

單子은 單子의 體이다

文章

文章은 文章의 體이다

教

教은 教의 體이다

講

講은 講의 體이다

文式

文式類知卷之三

四十八

寫

硯

書

冊

圖

正

寫字... 스니... 알... 시... 책... 짓는... 가... 보... 되... 주... 음... 소

硯... 루... 는... 먹... 이... 쉬... 이... 존... 니... 되... 는... 할... 이... 야... 품... 이... 요... 으... 니... 라

書... 안... 에... 책... 을... 싸... 어... 두... 니... 년... 낱... 듯... 허... 되... 다

冊... 역... 을... 보... 고... 일... 하... 야... 남... 처... 를... 보... 내... 띠... 허... 음... 베... 다

圖... 서... 에... 인... 주... 가... 해... 마... 르... 지... 아... 니... 향... 매... 못... 치... 지... 아... 니... 개... 허

全

正... 서... 는... 종... 의... 줄... 게... 쓰... 기... 어... 렴... 소... 오... 니...

墨

草書

印

畫

刻

能筆

冊衣

역이도호인글서예
間 出나옴데

草書는 획이다 드되 조 조 보는글씨는
自然노아옴느니

인적이이신후에야
官文 書서되옴느니

그림은 생화가잇서야
名畫라호옴네다

사건거시분명허니
오래여도 환허지아니
히리

能書는 글씨는
筆호옴네다

冊衣가 여러지니
곳처두옴소

文

式冊衣

交隣須知卷之三

四十九

正 閣

正閣 正閣간이 엄서도 여러 줄을 바로 쓰니 과연 명필이 토세

二字上 上極行

一字上 極行

最上 平行

墨이 열다

墨이 진다

墨이 진다

書 서 鐵 鐵진

水 水 鐵 鐵

水 水 鐵 鐵

武 備

武官 노릇 손 기운 이 세 손 사 물 이 협 세 울 테

鐵

鐵 속 이 업 스 니 마 존 들 關 係 開 閉 二

小刀

小刀가야 무리들을 관거 손 못 버히거든

鐔

막이 쇠는 둔둔하여야 환도 논을 막느니라

鳥銃

鳥銃을 맛고 엿지 살사 문이 잇스울로

胃

두구는 살을 마저 두두터 지지 아니 할오

甲

갑옷을 넘어 보니 전장에 남야도 판계 치야 볼 듯시

平의다

焰 焔

焰은 기운이 미러 열기를 잘 허느니라

火藥

火藥ハクヤク은 불ヒ다 ヒケル히면 곳이니 ヒ러나 ケ거니

硫黃

硫黃リウワウ은 불ヒ꽃ハ을 ヒ니 ヒ록 ヒ거 ヒ는 거 ヒ시 ヒ로 ヒ세

旗

旗ハタ는 방ハ색ハ을 표ヒ하야 호ヒ영ヒ히 ヒ게 ヒ명ヒ호 히거 히시 히니 히라

鉦

鉦シ은 군ハ소 ヒ를 히터 히과 히협히제 히티 히는 거 히시 히라

羸

羸ヒ은 대ハ장ヒ암 히피 히세 히위 히위 히외 히를 히삼 히는 거 히시 히라

角

角ツノ지 히를 히세 히고 히질 히쓰 히면 히손 히이 히암 히주 히지 히아 히니 히호 히오 히니

筒

筒ツツ개 히는 히술 히을 히현 히졌 히다 히가 히나 히식 히싸 히여 히쓰 히게 히초 히는 거 히시 히로

氏木

掌甲

火繩

牌

弓

矢

세 술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790 800 810 820 830 840 850 860 870 880 890 900 910 920 930 940 950 960 970 980 990 1000

장갑을 세고 활을 쥐면 활종이 뒤우 쥐이 읊느니

화승 불을 화약에 붓친 죽을 찌 펄떡 나리나 무성스

외다

패는 군사예성명거주들 낫낫치 표훈거시라

활을 잘 무어야 살이 멀니가 읊느니

살은 대가 발니야 바루가 읊느니

箬

살은 위가 업스니 잇싸야 쓰올라

及

논이 위우애부러저 못쓰올라

骸

고두리슬은 쇠촉아니 막은 거시라

長

장검은 싸여보니 빛치서 리스오

寶

보검은 눈빛치하늘을 쓰인 다 허옇스니

利

니검은 손을 매기만 하야 도버여진 다 허옇스니

刀

말슴에 가 길 싸야야 즈로가 둔한이 되기느니라

汗
法
論

精^ス氣^キ神^シ身^シナ 錢^{ゼン}エ^キノ^クア^ノニ^シ戰^{セン}フ^トナ^クア^ナヲ^クモ^レノ
腸^{チヤウ}胃^{ワイ}는^는 몸^몸을^을 감^감추^추는^는 거^거사^사너^너 싸^싸움^움 호^호제^제업^업지^지 못^못 할^할 거^거시^시

大
論

論^{ロン}ハ^ハ身^シナ 錢^{ゼン}エ^キノ^クア^ノニ^シ戰^{セン}フ^トナ^クア^ナヲ^クモ^レノ
腸^{チヤウ}胃^{ワイ}는^는 몸^몸을^을 감^감추^추는^는 거^거사^사너^너 싸^싸움^움 호^호제^제업^업지^지 못^못 할^할 거^거시^시

戈
論

鎗^{クワン}ヲ^ヲカ^カア^アコ^コト^トナ^ナオ^オゴ^ゴエ^エア^アイ^イテ^テ戰^{セン}兵^{ヘイ}ヲ^ヲク^クト^トア^ア
상^상쓰^쓰기^기를^를 닦^닦아^아 버^버러^러 가^가 지^지 고^고 적^적병^병을^을 타^타 죽^죽이^이라^라

鼓
論

大^대鼓^고를^를 두^두 드^드 리^리 고^고 어^어 서^서 일^일 하^하 게^게 하^하 음^음 소^소

大
鐘

大^대鐘^종은^은 산^산을^을 넘^넘 어^어 들^들 니^니 라^라

蓋
論

盖^개도^도 국^국과^과 又^유 트^트여^여 장^장슈^슈암^암커^커 세^세 워^워는^는 거^거사^사라^라

鞘
論

鞘^{샤오}는^는 칼^칼의^의 皮^피로^로 싸^싸여^여 있^있는^는 거^거시^시라^라

武備 皮論須知卷之三 五十二

鞆

鞆 지 세 고 활 쏘 면 활 이 달 암 푸 니 라

彈

彈 子 發 射 다 가 는 鳥 心 을 맞 치 니 용 허 오

兵符

兵符 是 關 察 使 가 맞 더 습 네 다

片箭

片箭 是 油 紙 로 싸 고 是 는 거 시 라

令箭

令箭 是 持 者 오 면 文 翰 印 서 도 드 領 보 내 습 네 다

火箭

火箭 是 火 藥 노 왓 더 니 달 니 가 서 는 러 쪼 더 라

繩起箭

繩起箭 是 火 子 金 針 外 라

鐵丸

鐵丸(아이)成(성)子(子)類(類)一(一)也(也) 鐵丸은 간(간)의 모(모)를 代(代)히 用(用)하(하)는 物(物)也(也)

擲銀手

擲銀手(적검수) 擲(적)은 手(手)로 銀(銀)을 投(投)하(하)는 事(事)也(也) 擲銀手(적검수)도 才(才)를 用(用)하(하)는 物(物)也(也) 擲銀手(적검수)는 手(手)로 銀(銀)을 投(投)하(하)는 事(事)也(也) 擲銀手(적검수)는 手(手)로 銀(銀)을 投(投)하(하)는 事(事)也(也) 擲銀手(적검수)는 手(手)로 銀(銀)을 投(投)하(하)는 事(事)也(也)

鍊鞭

鍊鞭(철편)은 鐵(鐵)으로 製(製)한 鞭(鞭)也(也) 鍊鞭(철편)은 鐵(鐵)으로 製(製)한 鞭(鞭)也(也) 鍊鞭(철편)은 鐵(鐵)으로 製(製)한 鞭(鞭)也(也) 鍊鞭(철편)은 鐵(鐵)으로 製(製)한 鞭(鞭)也(也) 鍊鞭(철편)은 鐵(鐵)으로 製(製)한 鞭(鞭)也(也)

竹鎗

竹鎗(죽상)은 竹(竹)으로 製(製)한 鎗(鎗)也(也) 竹鎗(죽상)은 竹(竹)으로 製(製)한 鎗(鎗)也(也) 竹鎗(죽상)은 竹(竹)으로 製(製)한 鎗(鎗)也(也) 竹鎗(죽상)은 竹(竹)으로 製(製)한 鎗(鎗)也(也) 竹鎗(죽상)은 竹(竹)으로 製(製)한 鎗(鎗)也(也)

征戰

起兵

起兵(병기)은 兵(兵)을 起(起)는 事(事)也(也) 起兵(병기)은 兵(兵)을 起(起)는 事(事)也(也) 起兵(병기)은 兵(兵)을 起(起)는 事(事)也(也) 起兵(병기)은 兵(兵)을 起(起)는 事(事)也(也) 起兵(병기)은 兵(兵)을 起(起)는 事(事)也(也)

徵兵

徵兵(병징)은 兵(兵)을 徵(徵)는 事(事)也(也) 徵兵(병징)은 兵(兵)을 徵(徵)는 事(事)也(也) 徵兵(병징)은 兵(兵)을 徵(徵)는 事(事)也(也) 徵兵(병징)은 兵(兵)을 徵(徵)는 事(事)也(也) 徵兵(병징)은 兵(兵)을 徵(徵)는 事(事)也(也)

侵
矣

和
矣

和
親

勝

負

怯

屈
矣

侵
擄 노
하 니
마 지
못 하
여
막 는
다

和
同 동
후 후
에
무
엇
하
려
싸
오
리
요

和
親
친
을
구
하
니
하
고
군
병
을
물
니
자

이
기
거
든
몽
작
을
주
을
쇼
서

지
연
죄
를
주
리
라

갑
을
비
면
면
인
이
업
속
이
터
기
느
니
라

屈
복
복
씨
말
고
호
전
싸
와
보
자

救援

援兵 노타케루아
구완 명오기 지근의 여방 전허움세다
救援兵 노타케루아 지근의 여방 전허움세다

助力

力 나스스타
심을 도아
힘을 도와
힘을 도와

力 나스스타
힘을 도와

謀反

謀反 기틀도모호다가 누설허면
謀反 기틀도모호다가 누설허면
謀反 기틀도모호다가 누설허면

謀反 기틀도모호다가 누설허면

謀反 기틀도모호다가 누설허면

圍

에워쓰고 감히치면
에워쓰고 감히치면
에워쓰고 감히치면

에워쓰고 감히치면

刺

질너찍이끄도라오
질너찍이끄도라오
질너찍이끄도라오

질너찍이끄도라오

射

사부는진마다 잇서
사부는진마다 잇서
사부는진마다 잇서

사부는진마다 잇서

殺

죽이지말고
죽이지말고
죽이지말고

죽이지말고

斬 剪 彎 亡 降 符 功

對 仗 對 對 對

머허그머리를軍中에회시히여라

중귀그여당을엄시호자

활을두리쓰터니과연맛저무나

도망허든놈을잡어오거든사회호야라

항목바른후에는도라가공을알위게자

符를해터공신을봉호신다허음데

공를일운후에는풀터가본거시울호디라

拔 披 發 偷 叛 對 敵 防

拔 キキ 披 ヒ 發 ハツ 偷 ヒソカニ 叛 ヒナグサニ 對 タガヒ 敵 トク 防 マカフ

拔 キキ 披 ヒ 發 ハツ 偷 ヒソカニ 叛 ヒナグサニ 對 タガヒ 敵 トク 防 マカフ

發 ハツ 偷 ヒソカニ 叛 ヒナグサニ 對 タガヒ 敵 トク 防 マカフ

偷 ヒソカニ 叛 ヒナグサニ 對 タガヒ 敵 トク 防 マカフ

叛 ヒナグサニ 對 タガヒ 敵 トク 防 マカフ

對 タガヒ 敵 トク 防 マカフ

防 マカフ

前

紋

響

報

匣

伏

層

잇숨베다

죽을나 죽이는 죄는 버히는 죄지이니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난다 허옇다

원수 갑훈후는 죽은 줄무슨 한이 잇쓰올고

갑갑이에 위쓰고사루잡어내여라

복병을 앓다가 불시에 배드라티자

층층이 군수가 돌너쓰니나갈결이엿수오

戰場

戰

亂

挑戰

幟

伐

中

戰場은 이기^{ハカ}는 편^ハ이 병기^ヘ를 만^ヲ이 엿^キ느니

싸움은 장^{大將}의 지^智해가 웃^笑음이 오니

어즈러운 때^ト는 이진사^人들은 다 숨어 잇다^云 함음^云네다

싸움^イ을 도^ト두^コ되^ケ성^中중^ト에서 나^リ지^ア아^ス나^ハ곤^ダ다

관^ハ역^ト은 정^正심^心공^工부^夫오^ハ매^ハ를^ハ을^ト정^正히^キ허^レ민^レ질^レ맛^ク습^マ느니

터^カ서^キ라^キ야^ヤ공^功을^ヲ세^メ우^ク자^ク

맛^マ치^チ조^ウ아^ア래^ニ하^リ니^ニ죽^ス을^ル씨^ニ相^相실^實히^キ외^ハ다^ス

征戰 征戰須知卷之三

五十六

掠 欺 守 敗 擒 獵 死

死 スル 기는 쉬우나 비명예 죽지 마옵소

산양도 ハク 수가 잇셔 오늘은 아무것도 못잡엇습네다

獵

사루잡엇븐 호인들을 다노아라

胡人

敗 レ 야위곤더 경어가서 사라앗습네다

敗地

작히기를 못케 하니 성이 부질하여도 건디오리

不實

속거 欺 군을 유인하앗다가 치면 필경이 괴리라

掠 ハク 노략질을 심이 하니 백성이 반포뵈이 인는 가시주오

軍號

軍號 軍號는 밤에 싸움의 쓰느니라

水

水 水는 빈 싸움을 넘기는 거시라

習陣

習陣은 북디 싸움을 마룻치음네다

加會

加會는 풍년이 변하여야 허음느니라

飢陣

飢陣은 위가 당당히 외다

飲食

酌酒

酌酒은 술부어라 손님세권자

設酒

술을 배 줄 고 잔 취 허용 세

罄酒

술이 진 허거든 밧 비어 터 오 나 라

屑

부스 러 기 라 도 공 연 이 버 리 지 말 라

刀

麵

말 국 슈는 마 늘 어 야 먹 기 도 호 니 라

羹

국 은 터 운 김 에 먹 으 면 마 시 터 허 니 라

醬

醬 을 잘 달 아 서 닉 켜 라

清

醬

醬 油 나 처 라 국 이 승 겁 다

菹

김치가마시시금시금허오

飯

밥이되니부르께다시지여라

餅

떡은아무리안이먹어도밥싱각이나음네다

饅頭

만두는여러가지맛난거스로속넛조민든씩이오니

蜜果

달은과자는너모둔어만이먹지못허음네다

正果

정과는아무과조라도쌀을너허망근거시니라

粥

죽은거러야먹기도호니

肉

고기는 연하고 기름이지면 마시비상허오니

膽

膽은 마늘개허야 먹기뚫커니

嗜

질기는 거손안이 먹어도 체하는일이업디니

酒

주식은 상가야 울스오

濁

탁주를 먹으면 요괴는 혼만허외다

清

청주는 취항야 두잠만허면 세음스니

燒

燒酒는 독한거시인 꼭히 먹지마옵소

蜜

飴

油

麴

醋

麵

肴

蜜^ハ은^ニ 정^精신^神을^ヲ 보^補하^ス느^ニ니^ラ

飴^ヲ食^ス고^シ 아^ア 먹^カ자^ハ

油^ヲ를^ヲ 취^キ 맛^マ나^나 기^氣분^分을^ヲ 향^香아^아라^라

누^カ룩^ク이^ニ 돛^イ기^ニ에^テ 술^ヲ이^ハ 잘^ク되^어 씹^히네^다

醋^ハ는^ニ 잘^ク담^아야^니 마^시편^치아^니 허^느니^라

국^ク수^ス를^ヲ 주^ク린^다 김^치에^는 만^이 먹^기엇^디니^라 아^무것^도 술^수외^다

安^ア酒^ニ를^ヲ 권^하옵^쇼서^라

飲食

交關須知卷之三

五十九

茶

차를 먹으면 食物의 氣가 壯해진다 하옵네다

稷

밥에 白砂糖을 다서 버어라 氣分을 보하옵나니

豉

물국을 주주 먹으니 술이 덜 취하엿습네다

甘

강장은 승거운 食物에서 辟어 먹는다

洋

뜻되는 개나주어라

澆

끓여 말굴을 氣分이 안처라

醅

라 氣分을 보하옵나니

醅

氣分

豆腐

豆腐(トウフ)汁(ジュ)を(イ)アケ(ク)ハ(イ)ケ(ク)オ(ウ)ニ(イ)テ(ル)

薦新

薦新(ハ)ノ(ロ)ノ(チ)手(テ)後(ア)ニ(ニ)キ(キ)ケ(ケ)イ(イ)ガ(ガ)オ(オ)リ

五花糖

五花糖(ハ)内(ニ)胡(コ)麻(マ)一(ツ)ツ(ツ)ア(ア)式(シキ)잇(イ)거(거)니

砂糖

砂糖(サ)糖(トウ)果(カ)子(コ)ハ(ハ)長(チ)雨(ウ)時(ジ)分(フ)ニ(ニ)ハ(ハ)色(シキ)가(가)아(아)서(서)는(는)빛(빛)치(치)업(업)씨(씨)지(지)느(느)니

雪糖

雪糖(ハ)糖(トウ)은(은)청(청)열(열)허(허)음(음)비(비)다

橙糖

橙糖(チ)ン(トウ)糖(トウ)은(은)동(동)고(고)막(막)기(기)무(무)던(던)하(하)외(외)다

氷糖

氷糖(ハ)氷(トウ)糖(トウ)은(은)입(입)에(에)너(너)허(허)두(두)면(면)절(절)노(노)독(독)느(느)니(라)

飲食

食類須知卷之三

六十

橘餅

橘餅 橘餅 式 五斤、下、
橘餅 橘餅 式 五斤、下、

花煎

花煎 花煎 式 五斤、下、
花煎 花煎 式 五斤、下、

松餅

松餅 松餅 式 五斤、下、
松餅 松餅 式 五斤、下、

包餅

包餅 包餅 式 五斤、下、
包餅 包餅 式 五斤、下、

江正

江正 江正 式 五斤、下、
江正 江正 式 五斤、下、

飯價

飯價 飯價 式 五斤、下、
飯價 飯價 式 五斤、下、

梨花酒
니 화주

方丈酒
방문주

正誤

- 五丁才五行 囉ハ其ノ誤 ○十八丁才六行 囉ハ其ノ誤
- 七丁才二行 囉ハ其ノ誤 ○二十丁才二行 니ハ其ノ誤
- 九丁才三行 囉ハ其ノ誤 ○二十八丁才四行 囉ハ其ノ誤

再刊交隣須知卷之三

終

書文編題詞卷之三

○此下、三行、臣、等、謹、言、○二十八年七月、臣、等、奏、

○此下、三行、臣、等、謹、言、○二十八年七月、臣、等、奏、

○此下、三行、臣、等、謹、言、○二十八年七月、臣、等、奏、

○此下、三行、臣、等、謹、言、○二十八年七月、臣、等、奏、

玉

○此下、三行、臣、等、謹、言、○二十八年七月、臣、等、奏、

○此下、三行、臣、等、謹、言、○二十八年七月、臣、等、奏、



○○○○○○○○○○○○○○○○
 五 四 五 五 四 四 四 三 三 廿 廿 十 十 十 一
 十 十 十 十 十 十 十 十 十 七 二 九 八 七
 九 六 四 八 七 四 七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業
 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才
 五五三七五五一七一一二二三二一五
 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
 利再交隣須知卷之三
 正誤
 前^ノ숨^〇를^〇데^〇법^〇언^〇애^〇 〇^ノ험^〇々^〇남^〇 〇^ノ잠^〇之
 〇^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誤



